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016. 12. 7

## 금 융 위 원 회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 인사 말씀

여러분,  
우리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유럽은행 건전성 우려 및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 대선 영향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내수·수출 부진, 소비·투자심리 위축 속에서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리스크 요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서민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서민금융을 통해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여  
국민경제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고 광범위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2 서민금융 네트워크 개선 노력 : 그간의 추진 경과

정부가 가장 잘 하고 있고,  
가장 발전시켜야 하는 분야가  
바로 '서민금융'입니다.

정부는 그간 서민에 대한 두터운 금융지원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어  
개선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 ❶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자금 공급여력을  
연 5.7조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
- ❷ 취약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맞춤형 채무조정 도입\*과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로  
조속한 경제적 복귀를 유도하는 한편,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감면율을 최대 50→60%로 확대

\*\*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한 취약계층에 대해 미소드림적금 지원

- ❸ 서민층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 연계, 소액신용카드 발급,  
핸드폰 할부구입 보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금융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원스톱·맞춤형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9월 23일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서민분들께서 한 번만 방문하시면  
생계·창업자금 등 각종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과 함께  
신용회복 상담, 일자리 안내 등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으실 수 있는  
현장접점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14.11월 부천 통합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이번달 중 전주 통합지원센터가 개소되면  
당초 목표였던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구성된  
서민금융 네트워크 전국망이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 3 화상상담 시범사업 등 서민금융 네트워크 개선 계획

여러분,  
서민분들께서 현재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자활·재기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 지원과 고용·복지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민에 대한 복지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고,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재기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고용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불가분의 관계인  
서민금융 지원과 고용·복지 지원을 위해  
각 부처와 기관에서 기울이던 노력을 한 자리에 모아  
서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거상의(輔車相依)\*의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수레의 덧방나무(바퀴살의 힘을 돕는 나무)와 바퀴가 서로 의지  
하듯 서로 도움

금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연계 강화를 위한 화상상담 시범사업은  
그간 서민금융 별도의 지원에서 벗어나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범사업 운영을 토대로 화상상담이  
격오지 거주 서민분들의  
서민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따뜻한 금융'인 서민금융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번 화상상담 시범사업과 함께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운영실적 및 수요조사 등을 기반으로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 전반을 재구축하고자 합니다.

그간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서민자금·채무조정 지원 중심의 ①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불법사금융 상담 중심의 ②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부분적인 서민금융 상담을 제공하는 ③상담·지원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네트워크를 설치해 왔습니다.

현재 구축된 지역 네트워크를

①서민 이용편의 제고, ②유관기관간 협력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재편하여,  
수요가 증가한 지역은 센터 신설·인력 확충을,  
중복이 발생한 지역은 통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재구축 과정에서는  
지자체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통합입점이나 인접지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지원센터내 각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직원들의 상담교육을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과 자금지원 상담이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어져  
서민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정책서민자금 우선 배정 또는  
통합지원센터 전용상품 개발 등

마지막으로,  
금융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서민금융 이용의 편의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4 맺음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더라도,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쓸모없는 정책이 되고 맙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 확대에 발맞추어  
서민금융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서민금융의 따뜻함이 서민분들의 마음까지 전달되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의 일선에서  
서민분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언제나 고민하고 계시는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 직원분들께서

그동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포함한  
서민금융 및 지역 네트워크 전반에 대해 느끼셨던 점,  
향후 서민금융 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정책 수립에 도움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여러분,

정부는 서민금융의 핵심영역인

❶ 전달체계 혁신, ❷ 지원대상 선정, ❸ 상품개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전달체계 혁신을 위해

금일부터 시행되는 화상상담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하여  
서민금융 지원과 고용·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자리에서 논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실무자분들의 고견과

유관기관의 제안 등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반영하여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환능력을 반영한 평가기법 개발,

다양한 상품 브랜드의 단순화 등

수요자 중심 서민금융 지원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무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유관기관과 전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